**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데이빗 윌커슨**

****

†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영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번창시키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목적을 위해서 미국에 강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으뜸가는 대학교들,

예를 들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럼비아 등이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훈련시켜내는 성경 대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미국의 영적 부흥은

성서 협회들, 선교 협회들과 모든 교파들이

대선교사업을 벌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교회의 공통된 부르짖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라!”였습니다.

한 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은 복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온 천하에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 나라는 선교하는 나라예요. 복음 전파자들이지요”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번창케 하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재간 재능이나 과학적 기술, 지혜나, 노동, 윤리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분의 왕국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승리하는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이 지은 “위기, 그곳에 계신 하나님” 중에서...)